일본의 여신신화와 여음숭배

김 후 련*

Ⅰ. 머리말
Ⅱ. 지모신 이자나미의 죽음과 재생의례
Ⅲ. 여신 아마테라스의 죽음과 재생의례
Ⅳ. 모신(母神)에서 신처(神妻)로의 이행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신화[1]에는 여신신화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여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 여신신화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여신신화와 여음숭배와의 상관관계이다. 여음(女陰)은 일본의 여신신화의 스토리 전개과정에서 신화적 사건의 발단 내지 반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高天原)신화[2]와 지상계인 이즈모(出雲)신화[3]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원 교수

1) 일본신화는 주로 『고지키(古事記)』(712년)와 『니혼쇼키(日本書紀)』(720년)에 실려있는데, 이 두 책에 실려있는 신화를 약칭해서 기키신화(記紀神話)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키신화'라고 총칭해서 쓰지 않고 '고지키신화', '니혼쇼키신화'라고 분리해서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고지키신화와 니혼쇼키신화는 전혀 다른 별도의 신화적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고지키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립당시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당대의 여러 신화들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해서 일관된 주제에 따라 재편성한 정치신화이다. 이에 반해 니혼쇼키신화는 여러 이전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본문에 싣고 나머지 이전들도 일서(一書)라고 해서 나란히 싣고 있다. 따라서 니혼쇼키신화는 고지키신화로 재편성되기 이전의 개별 신화소로서 존재하던 일본신화의 원상과 고지키신화의 성립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 밖에 『후도키(風土記)』(713년)에 실려있는 신화는 '후도키신화'라고 따로 지칭하고자 한다.

2) 타카마노하라는 일본의 고대왕조가 있던 야마토(大和)의 천공에 상정한 신들의 세계로, 천상세계인 타카마노하라를 무대로 해서 진행되는 신화를 타카마노하라신화라고 한다.

있다. 둘째는 일본의 여신신화에 있어서 생성의 여신, 지모신, 모자신으로서의 특성이나 활약상을 보여주는 여신들은 대부분 지상의 이즈모에 출자를 둔 여신들이라는 점이다.[4)]

우선 여신신화와 여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이자나키노미코토(伊邪那岐命: 이하 이자나키로 약칭)와 함께 일본의 국토와 신들을 낳던 지모신 이자나미노미코토(伊邪那美命: 이하 이자나미로 약칭)가 불의 신을 낳다 여음이 타서 죽는 신화이다. 두 번째는 이자나키의 미소기(禊: 목욕재계)의례에 의해 탄생한 태양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 이하 아마테라스로 약칭)가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 이하 스사노오로 약칭)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음부를 북 실에 찔려 죽는 신화이다. 그런데 동굴에 몸을 감춘 아마테라스를 위한 진혼의례의 장면에서 아메노우즈메노카미(天宇受賣命: 이하 아메노우즈메로 약칭)가 유방과 여음을 드러난 채 춤을 춘다. 세 번째는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호노니니기노미코토(番能邇邇芸命: 이하 니니기로 약칭)가 지상으로 강림하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루타히코노오오카미(猨田毘古大神: 이하 사루타히코로 약칭)를 향해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낸 채 담판을 짓는 장면에 다시 여신의 여음이 나온다. 그밖에도 여음에 관한 전승은 이즈모신화의 수호신이자 야마토의 타타리가미(崇神: 재앙을 일으키는 신)인 오오모노누시노카미(大物主神: 이하 오오모노누시로 약칭)와 신처(神妻)에 관한 전승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고지키』에 의하면, 진무(神武)천황의 황후 호토타타라이스스케히메노미코토(富登多多良伊須須岐比賣命)는 오오모노누시가 붉은 칠을 한 화살(丹塗矢)이 되어 강으로 흘러가다, 변소에 들어가 있는 세야타타라히메(勢夜陀多良比賣)의 음부를 찔러 낳은 자식이다. 또한 『니혼쇼키』 스진(崇神)천황조에 의하면, 오오모노누시의 신처였던 야마토토토비모

---

3) 이즈모신화는 야마토(大和)의 정서쪽에 위치한 이즈모(出雲)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국신(國神)들이 활약하는 신화를 총칭하는 명칭으로, 이즈모를 신화적 세계로 표상화한 용어가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國)이다. 이에 반해 타카마노하라신화는 야마토의 천공에 있는 천상세계인 타카마노하라를 무대로 한 신화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천손이 강림해서 3대를 지낸 휴우가(日向)를 무대로 한 신화를 총칭해서 휴유가신화라고 부른다.

4) 이에 반해 타카마노하라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은 단성생식에 의해 태어나 단독신이거나 아니면 남신의 짝으로서 그 이름만이 존재하는 관념신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타카마노하라신화의 첫머리에 나오는 카미무스히와 이자나미는 각각 이즈모의 조신과 모신으로서 활약하며 시종일관 이즈모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반해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지상인 휴우가(日向)에서 태어나 시종일관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여신으로 일본 천황가의 시조신에 해당된다.

모소히메(倭迹迹日百襲姬)는 오오모노누시의 노여움을 사서 젓가락으로 음부를 찔러 죽는다.

다음은 일본의 여신신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화의 무대에서 실제로 활약하고 있는 여신들이 아마테라스와 아메노우즈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즈모에 그 출자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여신들은 이즈모의 조신(祖神), 모신(母神), 신처(神妻)로서 활약하면서 이즈모의 국가창성을 주도하는 남신들을 도와준다. 예를 들자면, 여신 카미무스히노카미(神産巢神: 이하 카미무스히로 약칭)[5]는 이즈모의 조신과 같은 존재로, 딸인 키사카이히메를 파견해 오오나무치노카미(大穴牟遲神: 이하 오오나무치로 약칭)[6]의 생명을 구한다. 또 자신의 아들인 스쿠나비코나노카미(小名毘古那神: 이하 스쿠나비코나로 약칭)를 파견해 오오나무치의 국토조성에 협력하도록 한다. 그밖에도 지모신 이자나미, 스사노오의 아내 쿠시나타히메, 오오나무치의 아내 스세리비메, 사다노오오카미의 모신 키사카이히메 등은 모두 이즈모의 여신들이다. 오오나무치는 아내인 스세리비메의 도움을 받아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 이하 오오쿠니누시로 약칭)가 되어 지상의 왕권을 성립한다. 그 후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에게 지상세계인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를 양도한 후 오오쿠니누시는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와 더불어 야마토(大和)의 대왕가의 타타리카미가 된다. 이로 인해 대왕가는 오오모노누시의 자손을 왕비로 맞이하거나 황녀를 오오모노누시의 신처로 받치거나 한다.

---

5) 무스히(産巢)는 만물을 낳는 생성력을 신격한 것으로, 무스히가 붙는 신명은 타카마노하라신화의 첫머리에 나오는 타카미무스히노카미(高御産巢神: 이하 타카미무스히로 약칭)와 카미무스히노카미(神産巢神)가 있다. 이 두 신은 단독신으로 태어난 신으로 타카미무스히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의 사령신(司令神)으로 활약하는 남신인 데 반하여, 카미무스히는 이즈모의 조신(祖神)으로 활약하는 여신이다. 고지키신화에서는 이 두 신을 중심으로 하여 타카마노하라의 천신(天神)의 계보는 '타카미무스히→이자나키→아마테라스→니니기'로 이어지고, 이즈모의 국신(國神)의 계보는 '카미무스히→이자나미→스사노오→오오쿠니누시'로 이어진다. 이 두 계통의 신화는 국신인 오오쿠니누시가 지상세계인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를 천손 니니기에게 양도하고 이즈모에 은거함으로써 하나로 통합된다.

6) 오오나무치는 이즈모의 대표적인 국신으로 여러 개의 신명을 갖고 있다. 오오나무치는 성년식을 치르기 전의 유아명이고, 이 외에 야치호코노카미(八千矛神), 아시하라시코오노카미(葦原色許男神), 우츠시쿠니다마노카미(宇都國玉神),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라는 신명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우츠시쿠니다마노카미(宇都國玉神)와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라는 신명은 타계인 네노카타스노쿠니(根の堅州國)에서 성년의례를 미치고 현세로 귀환하는 오오나무치를 축복하며 스사노오가 붙여준 이름이다. 이 중에서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라는 신명은 한자 뜻 그대로 큰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타카마노하라신화의 첫머리에 나오는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에 대응되는 이름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여신신화의 이러한 두 가지 특성에 근거해서 첫째, 일본신화에 보이는 여신의 죽음과 재생의례를 중심으로 고대일본인의 여음숭배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여음이 단순히 여성의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음의 유사 상징물인 동굴이나 분묘(전방후원분, 횡혈식 석실)와 관련해 사와 재생의 제장에서 벌어지는 진혼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즈모신화에 집중되어 있는 여신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여신신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즈모가 국신들이 사는 지상세계의 중심인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로 표상화된 것은 이즈모의 모신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Ⅱ. 지모신 이자나미의 죽음과 재생의례

천부신 이자나키와 지모신 이자나미는 각각 하늘과 땅, 부와 모, 남과 여, 생과 사, 현(顯)과 유(幽), 밝음과 어두움, 현세와 타계를 표상하는 신들이다. 이자나키와 이자나미는 일본신화의 신들 중에서 처음으로 혼인을 하는 신들로 두 신의 성교에 의해서 일본국토가 탄생하고 이어서 자연만물의 신들이 태어난다. 당시 지상은 원시의 해양 위를 국토가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형국이었다.

이에 타카마노하라의 천신들은 이자나키와 이자나미에게 "표류하는 국토를 고정시켜 단단하게 만들라"고 명하며 아메노누보코(天沼矛)라는 창을 준다. 두 신이 천부교(天浮橋) 위에 서서 창을 바다 속에 담그고 바닷물을 휘저어 끌어올리자 창에서 떨어지는 소금물이 굳어서 오노고로시마(淤能碁呂嶋)가 형성된다. 두 신은 이 섬에 강림한 후 아메노미하시라(天之御柱)라는 신성한 기둥을 세우고 궁전을 짓고, 이 기둥을 서로 반대로 돌면서 서로에게 구애를 한다. 두 신은 서로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로 묻고 답한다.

> 이자나키노미코토에게 묻기를 "너의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자, 여신이 대답하기를 "나의 몸은 차츰차츰 생겨서 이루어져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자나키노미코토가 말하기를 "나의 몸은 차츰차츰 생겨서 이루어졌으나 한 곳 남은 곳이 있다. 그러면 나의 여분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너의 몸에다 끼워 넣어 국토를 낳고자 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자, 이자나미노미코토 또한 "좋습니다"라고 하였다.[7]

이처럼 두 신은 서로의 생식기의 차이를 확인한 후 성교에 의하여 섬들은 낳기 시작한다. 이자나미는 아와시마(淡島)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의 시코쿠(四国), 오키(隠岐), 큐슈(九州), 츠시마(対馬), 사도(佐渡), 혼슈(本州) 등을 계속해서 낳는다. 이것이 이른바 오오야시마구니(大八島國)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자나키와 이자나미의 창조행위는 우주나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일본국토 창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국토의 출산이 끝나자 이어서 바람의 신, 나무의 신, 산의 신, 들판의 신과 같은 자연신들을 낳기 시작한다. 이어서 이자나미는 배의 신 토리노이와쿠스부네노카미와 곡물신 오오케츠히메노카미를 낳고 불의 신 히노카구츠치노카미(이하 카구츠치로 약칭)를 낳다가 여음이 타서 죽게 된다.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이자나미의 출산은 계속된다.

> 다음에 생겨난 신의 이름은 토리노이와쿠스부네노카미(鳥之石楠船神)였다. 이 신의 다른 이름은 아메노토리후네(天鳥船)라고 한다. 다음에 오오케츠히메노카미(大宣都比賣神)를 낳았다. 다음에 히노야기하야오노카미(火之迦具土神)를 낳았다. 이 신의 다른 이름은 히노가카비코노카미(火之炫毗賣神) 또는 히노카구츠치노카미(火之加具土神)라 한다. 이 아이를 낳다가 여음이 타서 몸져눕게 되었다. 그때 이자나미의 구토에서 생겨난 신의 이름은 카나야마비코노카미(金山毗古神) 다음에 카나야마비메노카미(金山毗賣神)이다. 그리고 대변에서 생겨난 신의 이름은 하니야스비코노카미(波邇夜須毗古神), 다음에 하니야스비메노카미(波邇夜須毗賣神)이다. 그리고 소변에서 생겨난 신의 이름은 미즈하노메노카미(彌都波能賣神), 다음에 와쿠무스히노카미(和久産巣日神)이다. 이 신의 자식이 도요우케비메노카미(豊宇氣毗賣神)라 한다.[8]

---

7) 「是に其の妹伊邪那美命に問曰ひたまひく、「汝が身は如何か成れる。」ととひたまへば、「吾が身は成り成りて成り合わざる処一処あり。」と答白へたまひき。爾に伊邪那岐命詔りたまはく、「我が身は成り成りて成り余れる処一処あり。故、此の吾が身の成り余れる処を以ちて、汝が身の成り余れる処を以ちて、汝が身の成り合はざる処に刺し塞ぎて、国土を生み成さむと以為ふ。生むこと奈何。」とのりたまへば、伊邪那美命、「然善けむ。」と答白へたまひき。」(『記』, p.53)

8) 「次に生まれる神の名は、鳥之石楠船神、亦の名は天鳥船と謂ふ。次に大宣都比売神を生みき。次に火之迦具土神を生みき。亦の名は火之炫毗売神と謂ひ、亦の名は火之加具土神と謂ふ。此の子を生みしに因りて、美蕃登炙かえて病み臥せり。多具理迩生まれる神の名は、金山毗古神、次に金山毗売神。次に屎に成れる神の名は波迩夜須毗古神、次に波迩夜須毗売神。次に尿に成れる神の名は、弥都波能売神。次に和久産巣日神。この神の子は豊宇気毗売神と謂ふ。」(『記』, pp.59-61)

여음을 의미하는 호토(蕃登)는 호토(火留·火處)로, 불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일본과 같은 화산섬에서 불이 거하는 장소는 화산의 화구로, 고대일본인은 화산열도 일본의 생성과정을 지모신 이자나미가 불의 신인 카구츠치를 낳는 출산행위로 표상화한다.[9] 화산의 화구에서 불, 용암, 돌과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은 대지의 여신이 여음을 드러낸 채 몸을 뒤틀면서 그 위대한 힘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대지의 출산행위이다.

불의 신 카구츠치를 낳다가 죽어가는 이자나미의 구토에서 금속신 카나야마비코와 카나야마비메가 생긴다. 이어서 대변에서 점토신 하니야스비코와 하니야스비메가 생긴다. 또 소변에서 물의 신 미즈하노메가 태어난다. 불의 신에 이어서 점토와 물의 신이 탄생하는 것은 점토를 물로 이겨 반죽해서 불로 토기를 굽는 토기문화의 시작을 신화화한 것이다. 이처럼 이자나미는 대지의 지모신답게 살아서는 국토와 여러 자연신들을 낳고, 죽어서는 배, 금속, 토기 등으로 상징되는 문화신들을 창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나미는 와쿠무스히에 이어서 곡령신 토요우케비메를 낳는다. 토요우케비메는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외궁(外宮)에 모셔져 있다.[10]

이처럼 이자나미의 신체가 불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곡물신이 태어나는 것은 불로 태운 밭에서 밭작물이 생성되는 화전농업을 반영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니혼쇼키』 제5단 일서(一書) 제2에 의하면, 카구츠치를 낳다 이자나미가 죽는 순간 흙의 신 하니야마히메와 물의 신 미즈하노메를 낳는다. 카구츠치는 하니야마히메

---

9) 한편 『엔기시키(延喜式)』의 호시즈메노마츠리(鎭火祭) 때 주상된 노리토(祝詞)에 의하면, 이자나미는 국토와 섬과 신들을 낳은 후 불의 신인 호무스비노카미(火結神: 이하 호무스비로 약칭)를 낳다가 음부가 불에 타 바위 뒤에 모습을 감춘다. 이자나미는 7일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이자나키에게 말했지만, 이자나키는 그 약속을 깨고 여음이 타버린 이자나미의 모습을 본다. 분노한 이자나미는 이자나키에게 지상의 세계를 통치하라고 하고 자신은 지하의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는 요미츠히라사카에 돌아와서 물의 신, 표주박(히사고: 瓢), 천채(川菜), 흙의 신 하니야마비메 등을 낳아 이들 신으로 하여금 불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말을 남긴다. 『엔기시키』에는 이자나미가 바위 안에 모습을 감추었다는 뜻의 이와카쿠레(石隱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나미가 모습을 감춘 장소가 동굴(洞窟) 내지 분묘(横穴式石室)임을 알 수 있다.

10) 이자나미의 음부를 태운 불의 신은 이즈모국조나 천황가에서 곡령의례를 거행할 때 피우는 인공의 불(히키리비: 鑽火)을 신격화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즉 히키리비키(鑽火機)를 히키리우스(火鑽臼)에 꽂은 다음 마찰시켜서 불을 일으키는 과정을 여신의 음부가 불에 타서 죽는 신화로 형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즈모타이사(出雲大社)의 히키리진지(火鑽神事)가 동지인 음력 11일 23일날 밤에 거행되는 일종의 니이나메사이(新嘗祭: 수확제)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를 취하여 와쿠무스히를 낳았는데, 이 신의 머리에서 누에와 뽕이 생기고 또 그 배꼽에서 오곡이 생긴다. 이 또한 불과 흙의 결합에 의한 밭작물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지키신화에 의하면, 스사노오에게 살해당한 오오케츠히메의 몸에서 곡물이 발생한다.

> 또 음식을 오오케츠히메노카미(大氣都比賣神)에게 달라하였다. 그러자 오오케츠히메는 코와 입, 그리고 엉덩이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끄집어내어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바칠 때 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速須佐之男命)가 그 모습을 엿보고 음식을 더럽힌 후 받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즉시 그 오오케츠히메를 죽이고 말았다. 그런데 살해당한 신의 몸에서 생겨난 것은 머리에서 누에가 생기고 두 눈에서는 볍씨가 생기고 두 귀에서는 조(粟)가 생기고 코에서는 팥이 생기고 음부에서는 보리가 생기고 엉덩이에서는 콩(大豆)이 생겼다. 그러자 카미무스히노미오야노미코토(神産巢日御祖命)가 이것들을 모아 각기 그것들의 씨앗으로 삼았다.[11]

상기의 전승에서 알 수 있듯이 오오케츠히메의 사체에서 발생한 곡물을 각각의 종자로 삼은 여신은 이즈모의 조신인 카미무스히이다. 더욱이 이 신의 자식인 스쿠나비코나는 조(粟)의 곡령신으로 이즈모의 오오쿠니누시와 함께 전국을 편력하면서 농경을 주도하고 온천을 개척하고 인간과 동물의 병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에 반해 니혼쇼키신화에서는 오곡의 종자는 달의 신 츠쿠요미노미코토(月讀神: 이하 츠쿠요미로 약칭)가 곡물신인 우케모치노카미(保食神:이하 우케모치로 약칭)를 살해해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니혼쇼키』 제5단 일서 제11에 의하면,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명을 받은 츠쿠요미가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에 강림해서 자신에게 더러운 음식을 대접했다고 곡물신 우케모치를 살해한다. 죽은 우케모치의 머리에서 소와 말, 이마에서 조, 눈썹 위에서 누에, 눈에서 피, 배에서 벼, 음부에서 보리, 콩, 팥 등이 각각 생긴다.[12]

---

11) 「又食物を大気都比売神に乞ひき。爾に大気都比売神、鼻口及尻より、種種の味物を取り出して、種種作り具へて進る時に、速須佐之男命、其の態を立ち伺ひて、穢汚して奉進ると為ひて、乃ち其の大気都比売神を殺しき。故、殺さえし神の身に生れる物は、頭に蚕生り、二つの目に稲種生り、二つの耳に粟生り、鼻に小豆生り、陰に麦生り、尻に大豆生りき。故是に神産巣日御祖命、茲れを取らしめて、種と成しき。」(『記』, p.85)

12) 이처럼 우케모치가 살해당한 후 생긴, 소, 말, 조, 누에, 피, 벼, 보리, 콩, 팥 등이 생기는데, 이들이 생긴 장소와 생긴 물건이 고대 한국어 발음에 대응된다는 점을 일

이에 아마테라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생들이 먹고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조, 피, 보리, 콩을 밭작물의 종자로 삼고, 벼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의 논에 심을 종자로 삼는다. 그리고 누에고치를 자신의 입에 품고 실을 뽑아내어 양잠을 창시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벼농사와 양잠은 천상의 타카마노하라에서 아마테라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혼쇼키신화는 지상에서 일반 백성들의 주식인 잡곡이 먼저 재배되고, 벼농사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은 천손강림 때 아마테라스가 니니기에게 볍씨를 하사한 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살해당한 여신의 몸에서 곡물이 발생하는 신화에 대응되는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하니와(埴輪)이다. 일본의 하니와 중에는 머리와 사지가 절단된 상태로 각지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토우들이 결코 제 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절단할 수 있도록 제작해 각 부분을 다른 곳에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살해당한 여신의 사체에서 곡물이 발생하는 곡물기원신화를 의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하니와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감자와 같은 구근작물을 심을 때 싹이 난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서 땅에 따로따로 심는 것처럼, 수확제가 끝난 후 곡물신인 여신을 표상화해 만든 토우의 사지를 절단해서 묻은 것이다.

한편 이자나키는 죽은 이자나미의 머리맡과 발치를 네발로 기어다니면서 통곡하며 애달파한다. 이자나미를 잊지 못한 이자나키는 죽음의 세계인 요미노쿠니로 가서, 이자나미를 현세인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로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 현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자나키에게 이자나미는 요미노쿠니의 음식(요모츠헤구이: 黃泉戸喫)을 먹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13]

본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머리(mara)와 말(mar), 이마(cha)와 조(cho), 눈(nun)과 피(nui), 배(pai 고형은 pari)와 벼(pyo), 여음(poti)과 팥(p'a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고지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니혼쇼키』의 편자가 고대 한국어를 알고 있어서 인체부위와 생물을 연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紀』, p.102의 5번 두주(頭註) 참고).

13) 이는 일본의 장례풍습 중에서 오래된 금기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 중권 제7화의 소생설화에도 이에 대한 금기가 나온다. 제7화의 설화는 교만한 마음에 민간불교의 성인인 교기(行基) 스님을 비방한 죄로 지옥의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지코(智光)라는 승려가 지옥에서 소생해서 현세로 돌아오는 소생설화이다. 지코는 죽지 전에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10일간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데,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간 지코는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소생하여 다시 현세로 돌아온다. 이때 현세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황천의 솥 불로 지은 음식(黃泉竈火物)'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등장한다.

그리하여 이자나키노미코토가 보고 싶어 요미노쿠니(黃泉國)로 갔다. 그곳에서 이자나미노미코토가 토노노토자시도(殿の縢戸)에서 마중을 나오자 이자나키노미코토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우리가 만들었던 나라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같이 돌아가자"라고 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자나미노미코토가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이미 요미노쿠니의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남편께서 와 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문제를 잠시 요미노쿠니의 신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뒤, 여신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동안 그 시간이 너무 길어 기다리기 힘들었다.[14]

이자나미가 문 안쪽으로 들어가 현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러 들어가 있는 동안, 기다리다 지친 이자나키는 머리에 꽂고 있던 빗의 살을 하나 떼어내서 불을 붙여 안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금기를 깨고 들여다 본 아내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구더기가 끓고 가스가 차서 부풀어오른 상태이다.

그 때 여신의 신체에는 구더기가 소리를 내며 뒤끓고 있었다. 머리에는 대뇌(大雷)가 있었고 가슴에는 화뢰(火雷)가 있었으며, 배에는 흑뇌(黑雷)가 있었고 음부에는 석뢰(析雷)가 있었고, 왼 손에는 약뢰(弱雷)가 있었으며 오른 손에는 토뢰(土雷)가 있었으며, 왼 발에는 명뢰(鳴雷)가 있었으며 오른 발에는 복뢰(伏雷)가 있었다. 모두 합하여 팔종의 뇌신(雷神)이 생겨나고 있었다.[15]

상기의 전승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나미는 만물을 낳는 지모신답게 완전히 부패한 사체의 각 부위에서 뇌신들을 생성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음부에서 석뢰(사

---

14) 「是に其の妹伊邪那美命を相見むと欲ひて、黃泉国に追ひ往きき。爾に殿の縢戸より出で向かへし時、伊邪那岐命、語らひ詔りたまひしく、「愛しき我が那迩妹の命、吾と汝と作れる国、未だ作り竟へず。故、還るべし。」とのりたまひき。爾に伊邪那美命答へ白ししく、「悔しきかも、速く来ずて。吾は黃泉戸喫為つ。然れども愛しき我が那勢の命、入り来坐せる事恐し。故、還らむと欲ふを、且く黃泉神と相論はむ。我をな視たまひそ。」とまをしき。如此白して其の殿の内に還り入りし間、甚久しくて待ち難たまひき。」(『記』, pp.63-65).

15) 「故、左の御美豆良に刺せる湯津津間櫛の男柱一筒取り闕きて、一つ火燭して入り見たまひし時、宇士多加礼許呂呂岐弖、頭には大雷居り、胸には火雷居り、腹には黒雷居り、陰には拆雷居り、左の手には若雷居り、右の手には土雷居り、左の足には鳴雷居り、右の足には伏雷居り、并せて八はしらの雷神成り居りき。」(『記』, p.65).

쿠이카즈치: 析雷)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쿠이카즈치는 예리하게 쪼개는 뇌신의 위력을 표상화한 것인데, 그 이미지가 여음의 형상과 기능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다.

한편 빈소에 들어가서 부패해서 구더기가 끓고 뇌신들이 생겨나고 있는 아내의 사체를 보고 난 후 비로소 이자나키는 사예(死穢)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서 도망친다. 자신의 부패한 사체를 본 남편에게 분노한 이자나미는 요모츠시코메와 뇌신들에게 요미노쿠니의 군사를 주어 뒤쫓게 한다. 마지막에는 이자나미 자신이 직접 뒤쫓아온다. 이자나키는 거대한 지비키노이와(千引石)를 갖다가 요모츠히라사카(黃泉比良坂)라는 언덕 위에 가로막아 놓고, 부부절연의 말[16]을 주고받고 헤어진다. 현세로 돌아온 이자나키는 요미노쿠니에서 돌아오자마자 부정하고 더러운 나라에 다녀왔으므로 미소기하라에(禊ぎ祓い)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자나키의 말에는 부패한 사체를 접한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관념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상기의 신화를 장송의례 절차대로 재구성하면, 이자나키의 황천국방문 신화는 '사(死) → 뢰(誄) → 곡(哭) → 빈(殯) → 장(葬) → 사예(死穢) → 계(禊) → 제(祭)'로 이어지는 장송의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자나미노미코토는 불의 신을 낳다가 결국 죽는다.[17] <死>
2) 이자나키노미코토가 말씀하시기를 '사랑스런 내 아내여! 어찌 당신을 자식 하나에 비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며[18] <誄>
3) 머리맡에서 네발로 기고 발치에서 네발로 기면서 통곡할 때[19] <哭>
4) ① 이자나키노미코토는 그 아내를 보고 싶어서 빈소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20] <殯>
   ② 그 아내인 이자나미노미코토를 만나고 싶어서 요모츠쿠니로 갔다.[21]
5) ① 죽은 이자나미노미코토는 이즈모노쿠니와 하하키노쿠니의 경계인 히바노야마에 묻혔다.[22]

---

16) 이자나미가 당신 나라 사람들을 하루에 천명씩 죽이겠다고 하자, 이자나키는 하루에 천 오백 개의 산실을 짓겠다고 응수한다. 이 절연의 대화를 끝으로 두 신은 각각 현세와 타계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자의 영역을 경계짓고 있다.
17) 「伊耶那美神、火の神を生みしに因りて、遂に神避り坐しき。」(『記』, p.61).
18) 「伊耶那岐命詔りたまひしく、「愛しき我が那迩妹の命を子の一つの木に易へつるかも。」と謂りたまひて」(『記』, p.61).
19) 「乃ち御枕方に匍匐ひ、御足方に匍匐ひて哭きし時」(『記』, p.61).
20) 「伊弉諾尊、其の妹を見まさむと欲して、乃ち殯斂の所に致す。」(『紀』, p.98).
21) 「其の妹伊耶那美神を相見むと欲ひて、黄泉国に追い往きき。」(『記』, p.63).
22) 「其の神避りし伊邪那美神は、出雲国と伯伎国との堺の比婆の山に葬りき。」(『記』, p.61).

② 이자나미노미코토가 불의 신을 낳을 때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였다. 그래서 키이노 쿠마노의 아리마에 묻혔다.[23] <葬>

6) 이자나키노오오미카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말이지 추하고도 더러운 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탄 곳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고 하시며,[24] <死穢>

7) 즈쿠시 히무카 다치바나오도의 아와키 들판에 도착해서 목욕재계를 하셨다.[25] <禊祓>

8) 이 나라의 토속(土俗)에 이자나미노미코토의 혼을 제사지낼 때 꽃의 계절에는 꽃을 드려 제사지냈다. 또 북과 피리를 울리고 번기(幡旗)를 달아 장식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사지냈다.[26] <祭祀>

상기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지키신화에 의하면 죽은 이자나미는 이즈모의 변방인 이즈모노쿠니(出雲國)와 하하키노쿠니(伯伎國)의 경계인 히바산(比婆山)에 묻힌다. 한편 니혼쇼키신화에 의하면 죽은 이자나미는 키이(紀伊)지방 쿠마노(熊野)의 아리마(有馬)에 묻힌다. 실제로 키이지방의 쿠마노에는 해안의 절벽에 큰 바위가 서 있는데, 그 바위에는 여음을 상징하는 구멍이 움푹 파여 있는 하나노이와(花の窟)라 불리는 이자나미의 제장이 있다. 당시 아리마의 주민들은 꽃과 깃발로 하나노이와를 장식하고 북과 피리와 같은 악기를 불며 사자의 영혼을 진혼하는 가무를 거행했는데, 아직도 이 행사는 매년 현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즈모노쿠니후도키(出雲國風土記)』에 의하면 이즈모의 우가향(宇賀鄕)에는 요미노사카(黃泉の坂) 또는 요미노아나(黃泉の穴)라 불리는 동굴이 해안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의 서쪽에 이와야토(窟戸)가 있다. 그 깊고 낮음을 알 수 없으며, 꿈에라도 이 해변의 동굴 주변에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속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요미노사카(黃泉の坂)・요미노아나(黃泉の穴)라고 부른다.[27]

---

23) 「伊弉冉尊、火神を生む時に、灼かれて神退去りましぬ。故、紀伊の国の熊野の有馬村に葬りまつる。」(『紀』, p.90).

24) 「伊邪那伎大神詔りたまひしく、「吾は、伊那志許米志許米岐穢き国に到りて在り祁理。故、吾は御身の禊ぎ為む」とのりたまひて、」(『記』、p.69).

25) 「筑紫の日向の橘の小門の阿波岐原に到り坐して、禊ぎ祓ひたまひき。」(『記』, p.69).

26) 「地俗、此の神の魂を祭るには、花の時には亦花を以て祭る。亦鼓吹幡旗を用て、歌ひ舞ひて祭る。」(『紀』, p.91).

27) 「磯の西の方に窟戸あり。深き浅きを知らざるなり。夢に此の磯の窟の邊に至れば必ず死ぬ。故、俗人、古より今に至るまで、黄泉の坂・黄泉の穴と号づく。」(『風土記』, p.183).

상기의 세 전승은 이자나미가 죽어서 간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고지키신화는 이자나미의 장지를 히바야마, 즉 산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니혼쇼키신화에서는 아리마의 하나노이와, 즉 해변의 동굴이라고 되어 있다. 후도키신화에서는 이자나미의 죽음에 관한 신화는 전해지지 않고 해안의 바위동굴을 '요미노사카' 혹은 '요미노아나'라고 전하고 있다. 세 전승 중에서 신화와 현지신앙이 일치하는 것은 니혼쇼키신화 뿐이며, 고지키신화와 후도키신화는 둘 다 이즈모 지방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중앙전승과 지방전승은 서로 연결고리 없이 별개의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세로 돌아온 이자나키는 미소기하라에를 한다. 이자나키는 먼저 몸에 지니고 있던 지팡이(杖), 허리띠(帶), 치마(裳), 옷(衣), 하카마(褌: 가랑이가 짧은 속옷바지), 관모(冠), 타마키(手纏: 손에 두르는 띠) 등 일곱 가지 물건을 벗어 던진다.[28] 엄밀히 말하면 이는 물에 들어가 하는 미소기(禊ぎ)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하라에(祓え)에 해당된다. 모두 12명의 신들이 이자나키가 몸에 지니고 있든 물건이나 옷가지를 벗어 던지는 하라에 의례에 의해 탄생한다. 하라에 의례에 의해 태어난 신들은 요미노쿠니의 부정에 노출된 상태에서 태어난 신들인 만큼 재앙을 일으키는 악신들이다.

이어서 이자나키가 츠쿠시(筑紫) 히무카(日向) 다치바나노오도(橘小門)의 아와키(阿波岐) 들판에서 물에 들어가 미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세 여신인 와타츠미노카미(綿津見神)가 탄생한다. 이 신들은 진구(神功)황후의 신라정벌 때, 황후의 항해를 도와 신라를 정벌하는데 활약하는 야마토왕권의 수호신이다. 이윽고 미소기 의례의 마지막 과정에서 왕권신화의 주역인 삼귀자(三貴子)가 출현한다. 이자나키는 이 세 명의 주역에게 각자 그 통치영역을 정해준다. 이자나키가 왼쪽 눈을 씻을 때 태어난 태양신 아마테라스에게는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를 다스리라고 명한다. 그리고 이자나키가 오른 쪽 눈을 씻을 때 태어난 달의 신 츠쿠요미에게는 밤의 세계인 요루노오스쿠니(夜の食國)를 다스리라고 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자나키가 코를 씻을 때 태어난 바람신 스사노오에게는 바다세계인 우나바라(海原)를 다스리라고 명한다. 그런데 스사노오만이 이자나키의 명령에 불복하며 어머니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추방된다.

---

28) 메소포타미아신화의 인안나의 지하세계 방문담에서도 여신 인난나가 지하세계의 일곱 가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몸에 걸친 옷과 장신구 등 일곱 가지 보물을 하나씩 빼앗겨 벌거숭이가 된다.

Ⅲ. 여신 아마테라스의 죽음과 재생의례

추방된 스사노오는 네노카타스노쿠니에 가기 전에 아마테라스가 통치하는 타카마노하라에 올라간다. 스사노오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산천이 모두 움직이고 국토가 온통 진동하자, 아마테라스는 완전 무장을 하고 스사노오를 기다린다.

> 그리하여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말하기를 "내 동생이 올라오는 것은 필시 좋지 않은 의도가 있어서이다. 내 나라를 빼앗으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음 곧 머리를 풀어 미즈라(美豆羅: 좌우 귀 근처에 두 가닥으로 묶는 머리)라는 형태로 머리를 묶고, 좌우의 미즈라와 카츠라(鬘: 얹은머리 장식)와 좌우의 손에 모두 오백 개나 되는 많은 구슬을 꿴 줄을 휘감고 등에는 천 개의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전통(箭筒)을 짊어지고 옆구리에도 오백 개의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전통을 차고, 또 위력이 있는 타카모토(竹靫: 활을 쏠 때 왼쪽 손목에 차는 가죽으로 된 무구)를 끼고 활을 세운 다음 힘차게 정원에 서서 싸락눈을 차듯이 발로 땅을 차면서 용감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기다린 후 말하기를 "어떤 일로 하늘에 올라왔는가" 하고 물었다.[29]

그러자 스사노오는 단지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다는 사정을 아뢰기 위해 온 것이며, 다른 사악한 뜻은 없다고 한다. 이에 아마테라스가 네 마음이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고 하자, 스사노오는 서로 서약을 하고 자식을 낳자고 제안한다. 아마테라스는 이 내기에 응하고 먼저 스사노오가 차고 있던 칼을 세 조각으로 잘라 우물물에 씻은 다음 입에 넣어 씹어서 내 품는다. 그러자 내 품는 입김의 안개로부터 세 명의 여신이 탄생한다. 이어서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오른쪽 갈래머리에 감겨있던 오백 개나 되는 구슬을 꿴 장식물을 건네받아 역시 우물물에 씻은 다음 입에 넣어 씹어서 내 품는다. 그러자 내 품는 입김의 안개로부터 다섯 명의 남신이 탄생한다. 스사노오는 자신의 물건에서 부드럽고 연약한 여자아이가 탄생하였으므로 자신이 내기네 이긴 것이라고 선언한다. 내기에 이긴 스

---

29) 「爾に天照大御神聞き驚きて詔りたまひしく、「我が那勢の命の上り来る由は、必ず善き心ならじ。我が国を奪はむと欲ふにこそあれ。」とのたまひて、即ち御髪を解きて、御美豆羅に纏きて、乃ち左右の御美豆羅にも、亦御縵にも、亦左右の御手にも、各の八尺の勾璁の五百津の美須麻流の珠を纏き持ちて、曾毘良迩は千人の靫を負ひ、比良迩は五百人の靫を附け、亦伊都の竹靫を取り佩ばして、弓腹振り立てて、堅庭は向股に蹈み那豆美、沫雪如す蹶散して、伊都の男建蹈み建びて待ち問ひたまひしく、「何故上り来つる。」と、とひたまひき。」(『記』, p.75).

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농경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다, 결국 제의 때 신에게 바칠 옷을 짜는 신전에 똥을 뿌리고 말가죽을 벗겨 신전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악행을 저지른다.

『니혼쇼키』 제7단 본문에 의하면, 스사노오가 말가죽을 벗겨서 이미하타도노(斎服殿: 신에게 바칠 옷을 짜는 신전)의 지붕에 구멍을 뚫고 던져 넣는 바람에 '아마테라스'가 하늘을 쳐다보다 베틀 북에 찔려 몸에 부상을 입고 아메노이와야토에 모습을 감춘다.

>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니이나메(新嘗)를 신에게 받치는 제사를 올릴 때에 맞추어, 몰래 니이나메궁(新嘗宮)에 분뇨를 뿌렸다. 또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이미하타도노(齊服殿)에서 신의(神衣)를 짜고 있는 것을 보고 검은 반점이 있는 말의 껍질을 벗겨 신전 지붕에 구멍을 뚫고 던져 넣었다. 이때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는 놀라서 베틀 북(梭)으로 몸을 다쳤다. 이로 인해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는 대노하여 아메노이와야토(天石窟)에 들어가 이와토(磐戸)를 잠그고 숨어 버렸다. 이로 인해 나라 안이 암흑으로 변해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알지 못했다.[30]

한편 『니혼쇼키』 제7단 일서 제1에 의하면, 아마테라스가 신전에 들어가 신에게 바칠 베를 짜고 있을 때 스사노오가 반점이 있는 말의 가죽을 벗겨 지붕에서 던져 넣는다. 이에 놀라 '와카히루메'가 갖고 있던 베틀 북으로 몸을 상하게 하여 죽는다. 이로 인해 '아마테라스'는 아메노이와야토에 몸을 감춘다.

이에 반해 『고지키』에 의하면, 베틀 북에 음부를 찔려 죽은 것은 '베 짜는 직녀'이다.

>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이미하타야(忌服殿)라는 건물로 들어가 신에게 바칠 옷을 짜게 하고 있을 때 스사노오노미코토가 그 건물의 용마루에 구멍을 내어 얼룩말의 가죽을 거꾸로 벗겨 이를 그 곳에 떨어뜨렸다. 그 때 베 짜는 여인(服織女)이 이를 보고 놀라는 바람에 베틀 북에 음부가 찔려 그녀는 그만 죽고 말았다.[31]

---

30) 「復見天照大神新嘗時、則陰放尿於神宮。又見天照大神、紡織神衣、居斉服殿、則剥天班駒、穿殿甍而投納。是時、天照大神驚動、以梭傷身。由此、発慍、内入于天石窟、閉磐戸而幽居焉。故六合之内常闇、而不知昼夜之相代。」(『紀』, p.113).

31) 「天照大御神、忌服屋に挫して、神御衣織らしめたまひき時、其の服屋の頂を穿ち、天の斑馬を

상기의 세 가지 전승을 비교해 보면, 『니혼쇼키』 본문에서는 '아마테라스'가 베틀 북에 몸을 찔려서 모습을 감춘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서 제1에서는 아마테라스가 아니라, '와카히루메'가 베틀 북에 몸을 다쳐 모습을 감춘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고지키』에는 '직녀'가 베틀 북에 음부를 찔려 죽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와카히루메는 아마테라스의 별명인 오오히루메와 관련이 있는데다가, 『니혼쇼키』 본문에서는 아마테라스가 베틀 북에 찔렸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스사노오의 폭력에 의해 음부에 손상을 입은 것은 원래는 아마테라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마테라스가 석실에 몸을 감춘 것은 원시태양신을 받들던 신녀가 베틀 북(히: 梭)을 매개로 한 신혼(神婚)에 의해 스스로 태양신으로 승격하는 재생의례이다. 이때 태양신과 신녀의 매개가 되는 빙의처는 태양(히: 日)과 불(히: 火)과 동음인 베틀 북(히: 梭)이다.

한편 스사노오의 난폭한 행동을 견디다 못한 아마테라스는 아메노이와야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숨어버리자,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상계인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도 완전히 암흑세계로 변해버린다. 이에 타카마노하라의 신들은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아메노야스가와(天安河)라는 강가에 모여서 타카미무스히의 아들인 오모히카네노카미(思金神)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게 한다. 그 결과 토코요(常世)의 장닭들을 모아서 울게 하고 거울과 오백개의 구슬을 꿴 장식물을 만들게 한다. 또한 숫사슴의 어깨뼈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하하키라는 나무를 뽑아다가 제의에 관해 점을 치게 한 다음, 태양신의 영신의례를 거행한다.

> 하늘의 카구야마(天香山)에 있는 잎이 무성한 비추기나무(木神)를 뿌리째 뽑아 윗가지에다 곡옥을 꿴 구슬의 장식물을 달아 놓고, 가운데가지에는 커다란 거울을 걸어 놓고 아랫가지에는 흰색의 천과 푸른색의 천을 매달아 놓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후토타마노미코토(布刀玉命)가 신성한 제물로서 손에 들고,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命)는 노리토(祝詞)를 외우면서 기원을 했으며, 아메노타지카라노카미(天手力神)는 석실의 문 옆에 서서 숨어 있었고, 아메노우즈메노미코토(天宇受賣命)는 하늘의 카구야마에 있는 히카게(日影: 덩굴식물)를 타스키(手次: 소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어깨 끈)로 사용하였다. 또 하늘의 마사키(眞拆)라는 넝쿨나무를 머리에 꽂고 하늘의 카구야마의 대나무 잎을 손에 쥐고, 아메노이와야토 앞에다 통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발을 세차게

逆剝ぎに剝ぎて堕し入るる時に、天の服織女驚きて、梭に陰上に衝きて死にき。」(『記』, p.81).

구르며 신이 들렸다. 그러자 젖가슴을 드러내고 치마끈을 음부에다 늘여 뜨려 놓았다. 그러자 천상계가 진동할 정도로 많은 신들이 함께 크게 웃었다.[32]

아메노우즈메는 여음을 드러내고 통 위에 올라가 춤을 추자 많은 신들이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다.[33] 이 웃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아마테라스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석실 문 앞에 기다리던 아메노타지카라노카미가 아마테라스를 끌어낸다. 결국 젖가슴과 여음을 노출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아메노우즈메로 인해 결국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몸을 감추었던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34] 이처럼 태양신을 받드는 무녀인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내는 행위는 죽은 태양신을 다시 소생시키는 동지의 진혼의례의 주술인 셈이다.

태양의 재생의례 때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낸 채 영신의례를 형성화한 것으로 보이는 하니와[35]가 발견되어 신화와 의례와의 상관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처음 그림은 군마(群馬)현에서 출토된 남근 하니와이다. 두 번째는 이바라기(茨城)현에서 출토된 여음을 드러낸 하니와이다. 세 번째는 토요나카(豊中)시에서 출토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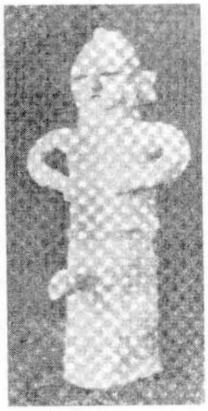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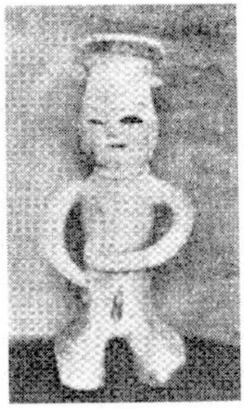
32) 「天の香山の真男鹿の肩を内抜きに抜きて、天の香山の天の波波迦を取りて、占合ひ麻迦那波しめて、天の香山の五百津真賢木を根許爾士て、上枝には八尺の勾璁の五百津の御須麻流の玉を取り著け、中枝には八尺鏡を取り繫け、下枝には白丹寸手、青丹寸手を取り垂でて、此の種種の物は、布刀玉命、布刀御幣と取り持ちて、天児屋命、布刀詔戸言祷ぎ白して、天手力男神、戸の掖に隠り立ちて、天宇受売命、天の香山の天の日影を手次に繫けて、天の真拆を縵を為て、天の香山の小竹葉を手草に結ひて、天の石屋戸に汗気伏せて踏み登杼呂許志、神懸り為て、胸乳を掛け出で裳緒を番登に忍し垂れき。爾に高天の原動みて、八百万の神共に咲ひき。」(『記』, pp.81-83).

33) 아메노이와야토 앞에서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드러내고 춤추는 것은 아마테라스가 숨어 있는 석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다. 이는 바우보가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리스의 지모신 데메테르 여신을 웃게 하기 위하여 여음을 드러내고 춤을 춘 것과 같다. 바우보의 행위에 의해 암실의 문이 열리고 다시 대지는 풍요를 약속 받는다는 결말도 같다. 데메테르 여신을 제사지내는 에라이온산의 동굴에는 천정부근에 8센치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어 그곳을 통해 일광이 동굴 속을 비추어 데메테르여신의 제단을 비추도록 되어 있다(大和岩雄, 『天照大神と前方後円墳の謎』, 大和書房, 1983年, pp.100-101 参考).

34) 이처럼 여성의 음부를 드러내고 추는 강신무에 대해서, 『古事記(日本古典文學全集)』에서는 '여성의 음부 노출은 쇠약해진 생명력을 갱신하는 주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古事記(新日本古典集成)』에서는 '사악한 기운(邪氣)을 쫓는 주술'이라고 해석한다. 『日本書紀(日本思想大系)』에서는 '음부를 노출하는 행위는 생성 풍요를 기원하고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는 주술이며, 여기서는 숨은 태양신을 부활 재생시키기 위한 神事'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이들 텍스트의 주석은 여음(ホト) 그 자체에 생명의 부활과 풍요의 주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35) 하단 그림은 오오와 이와오(大和岩雄)의 앞의 책(『天照大神と前方後円墳の謎』), pp.38-40 참조.

무녀 형상을 한 하니와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의 여음을 드러낸 채 무녀 복장을 하고 있는 하니와는 고대 태양신과의 성혼의례를 통해 태양신의 재생의례를 거행한 무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36) 동지는 태양이 일단 죽어서 재생하는 날이며, 동지 제의는 자연신으로서의 태양의 죽음과 부활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이러한 일반 민간의 동지의례와 달리, 궁정의 진혼의례는 태양신의 아들이자 그의 화신인 천황에 대해 거행하는 의례이다. 따라서 아메노이와야토 앞에서 행해진 아메노우즈메의 강신무는 태양신과 동체로서 인식된 천황의 쇠약한 영혼을 일깨우고 북돋우기 위한 궁정의 진혼의례37)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동굴칩거는 11월 동지 때 행해지던 태양신의 부활의례를 상징하는 신화이기 때문에, 동지에 자연신인 태양의 기운이 가장 쇠약해지는 것처럼 태양신의 화신인 천황도 그 무렵이 가장 기력이 쇠하는 시기라고 믿었던 것이다.

실지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죽음과 재생 의례를 신화화한 아메노이와야토 신

---

36) 태양신과 무녀의 성혼에 의한 태양신의 재생의례와 관련된 민속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이치(愛知)현 북부의 하나마츠리(花祭)때 신들을 모시는 무녀는 오비(허리띠)도 하지 않은 채 여음을 드러냈다. 일본본토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縄)의 미야코지마(宮古島)에서도 옛날에 무녀가 여음을 드러내고 동굴 속의 종유석에 음부를 비비며 태양신과의 태양신과의 성혼의례를 거행했다(大和岩雄, 위의 책, p.41 참고).

37) 진혼(鎭魂)에는 미타마후리(御魂振り)와 미타마시즈메(御魂鎭め)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의 미타마후리는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 영혼을 일깨워서 내부의 생명력을 충실하게 하는 것인 데 반해, 후자의 미타마시즈메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정화되지 않은 아라미타마(荒魂: 원혼)를 진혼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화는 텐무(天武)조정에서 시작된 궁정 제사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니혼쇼키』하권에 의하면, 11월의 진혼 의례는 텐무천황의 병이 그 해 9월부터 악화[38]된 것이 원인이 되어 회복을 기원하여 거행되었다. 천황이 5월부터 병상에 들어 눕고 9월부터는 병상이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력 11월 동지에 맞추어서 진혼의례를 거행한 것은 텐무천황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화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텐무천황의 궁정이었던 키요미하라궁(淨御原宮)에는 미무로도노(御窟殿)라 불리는 장소와 미무로인(御窟院)이라는 진혼 주법의 건물이 있었고[39], 그 곳에서 아메노이와야토 신화에 대응하는 진혼의례가 실제로 거행되었다. 궁정의 진혼제 때 진기관(神祇官)인 미칸나기(御神巫)가 나와서 '우케후네'라는 통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방울(사나기: 鐸)이 달린 창으로 통을 찌르는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었다. 이는 아마테라스가 석실 안에 모습을 감추었을 때 아메노우즈메가 '우케후네'에 올라가 한 손에는 방울이 달린 창(『코고슈이(古語拾遺)』)을 쥐고 가무를 하는 광경에 그대로 대응된다. 『엔기시키(延喜式)』에 의하면, 아메노우즈메의 후손인 사루메노키미(猿女君)도 진혼제 때 가무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40]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아메노이와야토에서 벌어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재생의례는 덴무천황의 초혼의례를 반영해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아마테라스의 아메노이와야토신화는 천손강림신화와 연동하고 있다. 이는 아마테라스의 진혼의례를 거행했던 이츠토모노오(五伴緒: 다섯 부족의 시조신)[41]신들이 그대로 천손 니니기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그리하여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命), 후토타마노미코토(布刀玉命), 아메노우즈메노미코토(天宇受賣命), 이시코리토메노미코토(伊斯許理度賣命), 타마노야노미코토(玉造命), 모두 합해 다섯 부족의 수장들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 왔

---

38) 「丁卯、為天皇体不予之、三日、誦経御大官大寺・川原寺・飛鳥寺。因以稲納三寺。」(『紀』下, p.473).

39) 「戊午、改元曰朱鳥元年。仍明宮曰飛鳥淨御原宮。戊寅、選淨行者七十人、以出家。乃設斎御宮中御窟院。」(『紀』下, p.148).

40) 松前健, 『日本神話の謎』, 人和書房, 1985年, p.86.

41) 천손 니니기노미코토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는 이츠토모노오(五伴緒: 다섯 부족의 시조신)신들은 북방 퉁그스 계통의 군사조직의 수를 나타내는 5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도 5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손이 강림한 지역도 카라쿠니(韓國)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손강림신화는 한반도의 신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 그 때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를 석실에서 나오게 할 때 사용하였던 야사카노마가타(八尺句璁)와 거울 및 쿠사나기노츠루기(草那藝劒), 그리고 토코요(常世)의 오모히노카미(思金神), 타지카라노오노카미(手力男神), 아메노이와토와케노카미(天石門別神)도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거울은 오로지 나의 혼(魂)이라 여기고 내 자신을 모시는 것처럼 우러러 모시도록 하라. 그리고 오모히노카미는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42)

이처럼 천손을 따라 강림하는 신들이 아메노이와야토 앞에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진혼의례를 거행했던 신들과 동일 신인 것으로 보아, 진혼의례와 천손강림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메노이와야토신화는 다이죠사이(大嘗祭: 천황의 즉위의례)와 연동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테라스의 분신인 아메노우즈메가 석실 문 앞에서 신이 들려 춤추는 모습은 남성태양신을 받들던 무녀에서 여성 태양신 아마테라스로 승격되기 이전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받들던 무녀가 태양신으로 승격된 것이 아마테라스이다. 이와 같이 남성 태양신에서 여성 태양신으로 이행하는 태양신의 교체를 보여주는 것이 사루타히코 앞에서 여음을 드러내는 신화에 투영되어 있다.

『니혼쇼키』 제9단 일서 제1에 의하면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강림할 때 그 길을 가로막은 사루타히코 앞에서도 가슴과 여음을 드러낸다.

이리하여 니니기노미코토가 하강하려고 하자 이를 선도하는 자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한 신이 아메노야치마다에 있습니다. 그 신은 코 길이가 7척을 넘고 등 길이가 7척을 넘어 나나히로(七尋)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입 언저리는 밝게 빛납니다. 눈은 야하타노가가미(八咫鏡)같이 혁혁하게 빛나 마치 빨간 꽈리 같습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같이 강림하는 신을 파견해 그 신이 무엇 때문에 와 있는가 물으려고 했다. 이때 같이 동반한 신들은 무수히 많았으며, 다 안력(眼力)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신이었다. 그래서 특히 아메노우즈메에게 명하기를 "너는 안력이 누구보다 훌륭하니까 네가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메노우즈메는 나아가서 그녀의 젖가슴을

42) 「爾に天児屋命、布刀玉命、天宇受売命、伊斯許理度売命、玉造命、併せて五伴緒を支ち加へて、天降したまひき。是に其の遠い岐斯八尺句璁、鏡、及草那芸劒、亦常世思金神、手力男神、天石門別神を副へ賜ひて、詔りたまひしく、「此れの鏡は、専ら我が御魂として、吾が前を拝くが如伊都岐奉れ。次に思金神は、前の事を取り持ちて、政為よ。」とのりたまひき。」(『記』, p.127).

노출시키고 치마끈을 배꼽 밑에 늘어뜨리고 헛웃음을 치면서 그 신을 향해서 섰다.[43)]

상기의 전승에서 사루타히코의 모습을 형용해 '입 언저리는 밝게 빛나고 눈은 야하타노카가미처럼 혁혁하게 빛나 마치 빨간 꽈리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사루타히코의 눈을 태양신의 상징인 야하타노카가미라는 거울에 비유한 것을 보아도 그가 태양신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사루타히코가 천신이 강림하는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 그가 위로는 타카마노하라를 비추고 아래로는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를 비춘다고 하는 것은 찬란하게 하늘과 땅을 비추는 태양신임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 태양신인 사루타히코는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들어내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천손 일행을 츠쿠시(筑紫) 휴가(日向)의 타카치호(高千穗) 쿠시부루타케(槵觸峯)로 안내한다. 그리고 자신은 아메노우즈메의 배웅을 받으면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성지인 이세(伊勢)의 이스즈강(五十鈴川) 상류로 가서 좌정한다. 그러자 천손은 아메노우즈메에게 사루타히코의 이름을 따서 사루메노키미(猨女君)라는 이름을 하사한다. 이는 사루메노키미라는 이름의 씨족이 이즈모 토착의 오래된 남성 태양신 사루타히코를 받들었던 무녀였으며, 이 집안이 태양신의 신처로서 태양신과 성적의례를 거행하는 사이죠(齋女: 신녀)를 배출하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전승의 상관성을 지적하면, 태양신(히루코: 日子)을 받드는 신녀(히루메: 日女) 아메노우즈메는 남성 태양신인 사루타히코와 여성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앞에서 여음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두 태양신이 좌정한 곳은 태양신의 성지인 이세지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성 태양신 사루타히코는 이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아마테라스는 이세에 좌정한 후 황조신으로서 승격되어 천황가의 숭배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다른 신도 아니고 바로 남성 태양신 사루타히코가 여성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를 지상의 강림지로 안내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고지키

---

43) 「已にして降りまさむとする間に、先駆の者還りて白さく、「一の神有りて、天八達之衢に居り。其の鼻の長さ七咫、背の長さ七尺余り。当に七尋と言ふべし。且口尻明り耀れり。眼は八咫鏡の如くして、赤然赤酸醤に似れ」とまうす。即ち従の神を遣して、往きて問はむ。時に八十万の神有り。皆目勝ちて相問ふこと得ず。故、特に天鈿女に勅して曰はく、「汝は是、目人に勝ちたる者なり往きて問ふべじ」とのたまふ。天鈿女、乃ち其の胸乳を露にかきいでて、裳帯を臍の下に抑れて、咲□ひて向きて立つ。」(『紀』, pp.147-148).

신화에 의하면, 천손 니니기가 지상에 강림하여 "이 땅은 카라쿠니(韓國)를 향해 있고 카사사(傘佐)의 곳(岬)과도 바로 통하여 아침해가 바로 비추는 곳, 저녁 해가 비추는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다"44)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시 태양신 사루타히코가 새로이 부상하는 태양신 아마테라스와 그의 자손인 니니기에게 태양신의 지위를 넘겨주고 신처인 아메노우즈메의 안내로 이세지방에 은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이 부상한 여성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이세신궁에 죄정하게 되자, 그는 다시 이세지방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Ⅳ. 모신(母神)에서 신처(神妻)로의 이행

이세가 천황가의 시조인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성지라면, 이즈모는 국신인 오오쿠니누시의 성지이다. 이세는 일본신화가 성립되던 시기에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성지로서 관념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이즈모는 카미무스히, 이자나미, 스사노오, 오오나무치(=오오쿠니누시), 키사카히메, 스쿠나비코나, 오오모노누시와 같은 국신들이 살아 숨쉬고 활동하던 성지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차이는 현저하다. 더욱이 이즈모신화의 경우 여신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며 그 위상도 타카마노하라 신화에 비해 대단히 높다. 한 마디로 이즈모는 만물을 낳는 생성력 그 자체를 표상화한 여신 카미무스히, 우주만물을 낳고 생사를 관장하는 대지의 지모신 이자나미, 이즈모의 대표적인 남신인 오오나무치를 보호하고 돕는 스세리비메가 활동하는 여신들의 무대이다.

예를 들면 이즈모의 조신인 카미무스히는 지모신 이자나미의 딸인 오오케츠히메가 이즈모의 스사노오에게 살해당해 오오케츠히메의 사체에서 곡물이 생겨나자, 그것을 종자로 삼는다. 카미무스히는 오오나무치가 오오쿠니누시노카미가 되기 이전에 형들의 박해를 받아 죽었을 때 오오나무치를 살리고, 자신의 자식인 스쿠나비코나를 이즈모에 파견해 오오나무치와 함께 전국을 편력하면서 농경을 주도하고 온천을 개척하고 인간과 동물의 병을 다스리게 하는 이즈모의 조신(祖神)과 같은 존재이다.

---

44) 「此地は韓国に向ひ、笠沙の御前を真来通りて、朝日の直刺す国、夕日の日照る国なり。故、此地は甚吉き地。」(『記』, p.129).

이즈모의 모신신앙은 고지키신화의 오오나무치전승에 현저하게 드러난다. 야소노카미(八十神)의 박해로 인해 오오나무치가 죽자 그의 모신은 천상에 있는 카미무스히에게 울며 매달리며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러자 카미무스히는 키사가이히메와 우무기히메를 파견해 오오나무치를 살린다. 아들이 비록 기사회생하기는 했지만, 아들의 신변에 위험을 느낀 모신은 오오나무치를 살리기 위해 다시 그를 스사노오가 있는 네노카타스노쿠니(根之堅洲國)에 보낸다. 하지만 오오나무치의 시련은 타계에서도 계속된다. 스사노오는 오오나무치를 뱀이 우글거리는 방이나 지네와 벌떼가 가득 찬 방 등에 자게 해 담력을 시험하는데, 그 때마다 오오나무치를 도운 것은 스사노오의 딸인 스세리비메이다. 오오나무치는 스세리비메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3종의 신기를 얻어 이즈모로 귀환한다.[45] 타계에서 돌아온 오오나무치는 큰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인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오오쿠니누시가 국토조성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스쿠나비코나를 파견해 오오쿠니누시를 도운 신이 바로 카미무스히이다. 이처럼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의 국토조성사업의 대부분은 이즈모의 모성원리(여신들의 활약)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후도키신화에 의하면, 이즈모의 조신 카미무스히의 딸인 키사카히메는 이즈모의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를 낳는다. 『이즈모노쿠니후도키』에 의하면, 시마네현(島根郡) 카가(加賀)의 쿠게도(潛戶)에는 태양의 동굴이 있는데 키사카히메가 이곳에서 낳은 자식이 사다노오오카미다.

> 현재는 암굴이 있다. 높이는 10장 정도 되고 주위는 5백 2십 보 정도이다. 동과 서와 북은 외해(外海)로 통하고 있다. 이른바 사다노오오카미가 태어나신 곳이다. 태어나실 때 즈음해서 활과 화살이 사라졌다. 그 때 조신인 카미무스히노카미의 자식인 키사카히메노미코토가 기원하시기를, "내 아들이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늠름한 신의 자식이라면, 사라진 화살이여 나와라"하며 기도하셨다. 그러자 뿔 화살이 조수에 실려 흘러나왔다. 그 때 (그 뿔 화살을) 손에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다른 화살이다"라고 하며 던져버렸다. 그러자 금 화살이 흘

45) 오오나무치는 네노카타스노쿠니에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사회생의 주구(呪具)인 이쿠다치(生大刀)와 이쿠유미야(生弓矢), 그리고 신탁을 받을 때 쓰는 아메노노리고토(生詔琴)를 가지고 현세로 귀환한다. 그런데 오오나무치가 현세로 가지고 온 세 가지 신기(神器)는 천손 니니기가 강림할 때 가지고 온 야사카노마가타마(八尺の勾璁), 거울(鏡), 쿠사나기노츠르기(草那芸劒)에 대응된다. 또한 오오나무치에게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타계 네노카타스쿠니는, 천손 니니기에게 지상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타계 타카마노하라에 대응된다.

러나왔다. 그래서 눈앞에 오기까지 기다렸다 주어서 "어두운 암굴이구나" 하시며 화살을 쏘아 관통하셨다. 이에 조신인 키사카히메노미코토의 야시로(社)가 이곳에 진좌하고 계시다. 지금 사람들은 이 암굴 근처에 갈 때는 반드시 큰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고 간다. 만일 몰래 가면 신이 나타나서 돌풍을 일으켜 지나가는 배는 반드시 전복한다.46)

같은 이야기가 『이즈모노쿠니후도키』 시마네군 카가향(加賀鄕)조에도 있다. 사다노오오카미가 이 곳에서 태어나실 때, 키사카히메(支佐加比賣)가 "어두운 암굴이구나" 하며 황금 화살을 쏘자, 동굴에서 빛이 빛났기 때문에 카가(加賀)라고 했다고 전한다.

사다노오오카미의 탄생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키사카히메가 금화살을 던져 태양이 빛나게 하자 사다노오오카미가 카가의 쿠게도 동굴에서 탄생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신은 태양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황금 화살은 각각 태양(활)과 일광(화살)을 상징한다. 그런데 태양신이 탄생한 동굴 모양이 여성의 음부와 닮은 데다가, 키사카히메라는 이름도 여성의 음부(赤具: 붉은 조개)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사다노오오카미는 바다조개인 키사카히메의 여음 내지 자궁에 해당하는 동굴에 황금화살을 관통해서 태어난 신인 것이다. 실제로 카가의 쿠게도 동굴과 마주보고 있는 마토시마(的島)는 동서축으로 일직선상에 서 있으며, 황금색으로 빛나는 태양이 이 두 곳을 일직선상으로 관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태양신의 일출광경을 배경으로 하여 태양신의 탄생을 전하고 있다.

둘째 사다노오오카미의 모신이 바로 카미무스히의 딸 키사카히메인데, 이 신은 전술한 대로 카미무스히의 명으로 오오나무치를 살린 여신이다. 키사카히메의 이름은 『고지키』에는 기사가이히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신은 불에 타 죽은 오오나무치의 시체를 수습해서 우무기히메(蛤貝比賣: 홍합의 여신)와 함께 조개껍질 가루에다 모유를 짜서 갠 약을 발라서 오오나무치를 소생시킨다.

---

46) 「加賀の神埼、即ち窟あり。高さ一十丈ばかり、周り五百二歩ばかりなり。東と西と北とに通ふ。謂はゆる佐太の大神の産れましししところなり。産れまさむとする時に、弓箭亡せましき。その時、御祖神魂命の御子、枳佐加比売命、願ぎたまひつらく、「吾が御子、麻須羅神の御子にまさば、亡せし弓箭出で来」と願ぎましつ。その時、角の弓箭水の随に流れ出でけり。その時、弓を取らして、詔りたまひつらく、「此の弓は吾が弓箭にあらず」と詔りたまひて、擲げ廃て給ひつ。又、金の弓箭流れ出で来れり。即ち待ち取らしまして、「暗欝き窟なるかも」と詔りたまひて、射通しましき。即ち、御祖支佐加比売命の社、此の処に坐す。今の人、是の窟の邊を行く時は、必ず声磅□かして行く。若し、密かに行かば、神現れて、飄風起り、行く船は必ず覆へる。」(『風土記』, p.149).

셋째 카가의 쿠게도는 이즈모의 대표적인 마츠리인 카미아리사이(神有祭)가 열리는 중심지역이다. 이 마츠리는 용사님(龍蛇さま)을 맞이하는 영신의례인데, 이 용사님의 정체는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이다. 국토조성에 협력하던 스쿠나비코나가 타계인 토코요노쿠니(常世國)로 가버려서 오오쿠니누시가 탄식하고 있을 때, 바다를 비추며 다가오는 신이 바로 오오모노누시이다. 오오쿠니누시는 국토 조성을 끝낸 후 오오모노누시가 원하는 대로 이 신을 야마토의 미모로산에 모신다. 그 후 오오모노누시는 천황가의 타타리가미가 되어 천황가의 제사를 받게 된다.

상기의 전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즈모 지방의 태양신은 여신 키사카히메가 동굴 속에 사는 남신의 감응을 받아 낳은 사다노오오카미이다. 그런데 사다노오오카미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 사루타히코노오오카미와 더불어 오오카미(大神)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신으로서, 이 세 신의 공통점은 모두 태양신이라는 점이다.[47] 이는 고대일본신화에서 태양신의 신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실례이다.

더구나 고지키신화가 아니라 니혼쇼키신화의 일서와 후도키신화 소재의 전승에 천황가의 조상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개의 지방신, 그것도 야마토의 동서 태양선에 위치하는 이세와 이즈모에 각각 원시태양신에 관한 전승이 존재하며 이들의 신격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이는 새로이 이세의 태양신으로 부상하는 여신 아마테라스 이전에 일본열도에 존재하던 남성 태양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카마노하라신화에서는 남신의 단성생식에 의해 여성 태양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태어나는 데 반하여, 이즈모신화에서는 여신에 의해 남성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가 태어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지키신화의 구조는 그 무대를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야마토)와 지상계인 아

---

47) 일본신화에는 야오요로즈노카미사마(八百萬神)로 불리울 정도로 수 없이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만, 처음부터 오오카미(大神)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신은 여성 태양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고지키신화), 남성태양신 사루타히코노오오카미(니혼쇼키신화), 남성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후도키신화)뿐이다. 특히 고지키신화는 아마테라스에게 오오미카미(大御神)이라고 해서 이중경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천부신 이자나키와 지모신 이자나미는 천상세계인 타카마노하라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는 각각 이자나키노카미와 이자나미노카미로 불리다가 지상세계인 아시하라나카츠쿠니를 조성하라는 명령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나키노미코토와 이자나미노미코토로 이름이 바뀐다. 이윽고 두 신이 사후의 세계인 요모츠노쿠니와 지상의 경계인 요모츠히라사카에서 결별을 하고 난 후 각자의 활동무대에서 사라지는 시점에서 오오카미라는 칭호를 마지막에 단 한번 부여받고 있을 따름이다.

시하라노나카츠쿠니(=이즈모)로 이원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타카마노하라'는 양(陽), 천(天), 부(父), 남(男), 생(生), 현(顯), 명(明), 청(淸)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상화하고,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는 음(陰), 지(地), 여(女), 사(死), 유(幽), 암(闇), 탁(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화하고 있다. 일본신화의 표층에는 여성원리가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화되어 있지만, 신화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여신들의 역할은 결코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고지키신화는 물론이고 니혼쇼키신화의 이전(一書)에 실려있는 전승이나 기층의 후도키신화에서, 여신들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모성원리에 입각해 신화의 주역(조신, 모신, 신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성력 그 자체를 표상한 이즈모의 조신 카미무스히는 이즈모 왕권의 형성에 중요한 모태가 되고 있다. 카미무스히의 딸 키사카히메는 오오나무치를 치료하고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를 낳는 모신이다. 만물을 탄생시킨 지모신 이자나미는 생사를 모두 관장하는 여신으로 일본국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신, 인문신이 모두 이자나미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다. 스사노오의 딸인 스세리비메는 신처로서 무녀 특유의 주술로 남편인 오오나무치를 도와 오오나무치가 이즈모왕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여신의 위상은 신대(神代)에서 인황(人皇)대로 넘어가면 바뀌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와 무녀의 혼인담이다.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는 이즈모의 오오쿠니누시의 국가건설을 도와주었던 이즈모의 수호신으로, 오오쿠니누시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다. 오오모노누시는 이즈모의 수호신이자 야마토 대왕가의 대표적인 타타리가미다. 이 신은 야마토의 천황가가 자신을 제대로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재앙을 일으키는 무서운 신이었기 때문에, 고대 야마토의 정복자들은 이 신과 타협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정권을 확장해 나간다. 일본의 초대천황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신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초대천황 진무(神武)의 왕비는 히메타타라이스케요리비메(『고지키』) 또는 히메타타라이스즈히메(『니혼쇼키』)이다. 『고지키』에 의하면,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는 세야타타라히메라고 하는 미인에게 반하여 그녀가 변소에 들어가 있을 때 붉게 칠한 화살로 변해 음부를 찌른다. 그녀는 그 화살을 가지고 와서 마루 곁에 두었다. 그러자 그 화살이 남자로 변해 둘이 혼인해 낳은 딸이 바로 호토타타라스스키히메노미코토(富登多多良伊須須岐比賣命)이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에 호토(여음)라는 말이 붙는 것을 싫어해서 히메타타라이스케요리히메(比賣多多良伊須氣餘理比賣)라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초대천황 진무의 황후로서 간택된 여성의 이름에 여음을

뜻하는 호토(富登)를 붙인 것을 보아도, 여음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붉은 칠을 한 화살에 관한 전승은 카모(賀茂)신사의 신혼담에도 등장한다. 『야마시로노쿠니후도키(山城國風土記)』에 의하면, 처음에 야마토의 카츠라기산(葛城山) 봉우리에 살던 카모의 타케츠누미가 야마시로로 이주한다. 타케츠누미는 타마요리히코와 타마요리히메라는 남매를 두었다. 어느 날 히메가 냇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붉은 칠을 한 화살(丹塗矢)이 흘러오자 이것을 집어 마루 근처에 두었다가 이로 인해 임신해 사내아이를 얻는다. 이 아이가 카모의 와케이가즈치노미코토(別雷命)이고, 붉은 화살로 변한 신은 호노이카즈치노카미(火雷命)라고 한다.

상기의 두 전승은 붉은 칠을 환 화살로 변해 찾아온 신과 여성의 신혼담이다. 카모신사의 신혼담에는 붉은 칠을 한 화살을 호노이카즈치노미코토(火雷命)라고 하고 있는데, 죽은 이자나미의 사체에서 8종류의 번개신이 나왔을 때 가슴에서 나온 것이 바로 화뇌(火雷)이다. 화뇌를 붉은 칠을 한 화살로 형용한 것은 번개가 번쩍일 때 일어나는 붉은 섬광을 표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니혼쇼키』에 의하면 1대 진무천황과 더불어 개국천황이라 불리는 10대 스진(崇神)천황의 치세 때 역병이 유행해서 백성들의 태반이 죽거나 유랑하고 모반이 일어난다. 그러자 천황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근신하며 천신지기(天神地祇)에게 제사하고 사죄하였다. 당시 천황이 거하는 궁전에 아마테라스와 야마토노오오쿠니타마노카미(日本大國魂神)를 같이 모시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이들 두 신은 서로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같이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신을 분리하여 궁궐 밖에서 따로 모시기로 하고 토요스키이리히메노미코토(豊鍬入姫尊)로 하여금 아마테라스를 받들게 하고, 누나키이리히메노미코토(淳名城入姫尊)로 하여금 야마토노오오쿠니타마노카미를 받들어 모시게 했다. 그러자 누나키이리히메는 머리가 빠지고 몸이 말라비틀어져서 야마토노오오쿠니타마노카미를 모실 수가 없었다.[48]

이에 천황이 여러 신들을 모시고 점을 치자, 그 때 천황의 고모인 야마토토토비모모소히메(이하 모모소히메로 약칭)에게 오오모노누시가 빙의해 자신을 숭상하고 받들어 모시면 자연히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신탁을 내린다. 모모소히메는

48) 「天照大神・倭大国魂、二の神を、天皇の大殿の内に並祭る。然して其の神の勢を畏りて、共に住みたまふに安からず。故、天照大神を以ては、豊鍬入姫命に託けまつりて、倭の笠縫邑に祭る。仍りて磯堅城の神籬を立つ。亦、日本大国魂神を以ては、淳名城入姫命に託けて祭らしむ。然るに淳名城入姫、髪落ち体痩みて祭ること能はず。」(『紀』, p.238).

총명하고 예지가 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힘이 있어, 그 전에도 타케하니야스비코의 모반을 예견하고 그 방도를 세우도록 천황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다. 천황은 오오모노누시가 시키는 대로 제사를 받들었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그러자 천황은 목욕재계를 하고 궐내를 청청하게 한 다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 신을 모실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한다. 스진천황이 잠자리에 들자 꿈에 오오모노누시가 나타나, "이 역병은 자신이 일으킨 것이므로 오오타타네코(意富多多泥古)로 하여금 나를 모시게 하면 이와 같은 역병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도 평온할 것이다"라는 신탁을 내린다.[49] 이에 스진천황은 오오타다네코를 오오모노누시를 모시는 신주로 삼고, 또한 오가오치(長尾市)를 야마토오오쿠니타마노카미(倭大國魂神)를 모시는 신주로 삼았다. 그러자 역병이 처음으로 근절되어 나라 안이 겨우 조용하고 평온하게 되어, 오곡이 무르익고 백성은 풍요롭게 되었다.

이처럼 오오모노누시가 자신을 받드는 신주로서 오오타타네코를 지목한 것은, 오오타타네코가 오오모노누시와 이쿠타마요리비메(活玉依毘賣) 사이에서 태어난 신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고지키』 스진천황조에 의하면, 이쿠타마요리비메는 그 용모가 단정하고 예뻤는데, 그녀에게는 한밤중에 홀연히 찾아오는 남자가 있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상하게 여겨 묻자, 매일 밤마다 수려한 용모를 한 남자가 찾아와 서로 같이 지내는 동안 어느덧 임신을 하고 되었다고 고한다.

> 이 말을 들은 부모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딸에게 "황적색 점토를 마루 앞에다 뿌려놓고 실패에 감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자락에 끼워 놓아라"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바늘에 꿰어 둔 실은 출입구의 열쇠구멍을 통해 빠져나가 있었고 다만 그 곳에 있는 실은 세 가닥뿐이었다. 그 남자가 열쇠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갔음을 알고 실을 따라 가보니 미와야마신사(美和山神社)에 이르러 그쳤다. 이러 연유로 미루어보면 오오타타네코가 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

---

49) 주목할 것은 진무천황과 함께 하츠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토(御肇國天皇), 즉 개국천황이라 불리는 스진천황 때 진무천황 때와 같이 천신지기(天神地祇)를 모시는 제사가 거행된다는 점이다. 이 때 황조신 아마테라스 뿐만이 아니라 쿠니츠카미(國津神=地祇)의 대표인 미와산의 오오모노누시노카미(大物主神)를 같이 제사지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진무천황과 스진천황은 둘 다 무녀나 신관을 통하지 않고 꿈을 통해 직접 신의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 그래서 그 실이 세 가닥 남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이름하여 미와(美和)라고 하였다. 이 오오타타네히코가 미와노키미(神君)와 카모노키미(鴨君)의 선조다.[50]

한편 『니혼쇼키』에 의하면, 그 후 모모소히메는 미야와마의 신인 오오모노누시의 처가 되었다. 그 신은 항상 밤에만 찾아왔다. 그래서 모모소히메는 밤에만 찾아오므로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내일 아침 쿠시게(櫛笥: 빗을 넣어두는 상자)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쿠시게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작은 뱀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오오모노누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참지 못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나는 보복으로 그대에게 치욕을 줄 것이다"고 하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미모로산(御諸山=三輪山)로 올라간다. 이에 야마토토토비모모소히메는 미모로산을 우러러보고 후회하면서 주저앉았다. 그 때 젓가락이 음부에 부딪혀 찔려 죽었다. 그래서 오오치(大市)에서 장사지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그 묘를 이름하여 젓가락무덤(箸墓)이라 하였다. 이 묘는 낮에는 사람이 만들고 밤에는 신이 만든 것이다. 오오사카산(大阪山)의 돌을 운반하여 축조하였다. 그 때 산에서 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해 운반하였다.[51]

이렇게 해서 야마토 천황가와 이즈모의 국신과의 가교역활을 했던 신처 모모소히메는 미와산에 사는 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바람에 음부를 젓가락으로 찔려 죽고 만다. 현재도 젓가락무덤이라 불리는 오래된 전방후원분이 미와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의 전승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에 구시게 안에 들어 있던 오오모노누

---

50) 「是を持ちて其の父母、其の人を知らむと欲ひて、其の女に誨へて曰ひけらく、「赤土を床の前に散らし、閉蘇紡麻を針に貫きて、其の衣の襴に刺せ。」といひき。故、教の如くして多且時に見れば、針著けし麻は、戸の鈎穴より控き通りて出でて、唯潰れる麻を三勾のみなりき。爾に即ち鈎穴より出でし状を知りて、糸の縦に尋ね行けば、美和山に至りて神の社に留まりき。故、其の神の子とは知りぬ。故、其の麻の三勾潰りしに因りて、其地を名づけて美和と謂ひなり。此の意富多多泥古命は、神君、鴨君の祖。」(『記』, p.183).

51) 「時に大神恥ぢて、忽に人の形と化りたまふ。其の妻に謂りて曰はく、「汝、忍びずして吾に羞せつ。吾還りて汝に羞せむ」とのたまふ。仍りて大虚を践みて、御諸山に登ります。爰に倭迹迹姫命仰ぎ見て、悔いて急居。則ち箸に陰を撞きて薨りましぬ。乃ち大市に葬りまつる。故、時人、其の墓を号づけて、箸墓と謂ふ。是の墓は、日は人作り、夜は神作る。故、大阪山の石を運びて造る。則ち山より墓に至るまでに、人民相踵ぎて、手□伝にして運ぶ。」(『紀』, pp.246-247).

시의 형상은 아름다운 작은 뱀이었는데, 미모로산으로 회귀하는 오오모노누시의 형상은 창공을 밟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시의 불이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채집된 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뇌(火雷)가 되고, 다시 비를 부르기 위한 기우제 때에는 화뇌는 농경신으로 변모하고, 이것이 다시 수원(水原)을 지키는 용사신과 습합했기 때문이다. 화뇌의 전광이 번쩍이는 모습은 아메노히보코로 형상화되고 정지한 모습은 붉은 칠을 한 화살(니누리야: 丹塗矢)로 형상화[52]된 것이다.[53]

한편 상기의 오오모노누시 제사권과 관련된 전승을 종합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부각된다. 천황의 황녀를 신처로 삼아 국신들의 제사를 직접 받들게 하고 신들도 이들 신녀에게 직접 빙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런데 스진천황 치세에 국신인 야먀토노오오쿠니타마의 제사를 받들던 스진천황의 황녀는 신을 받들어 모시지 못해 머리가 빠지고 몸이 여의고, 천황의 고모인 모모소히메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음부를 젓가락에 찔려 죽게 된다. 그러자 스진천황이 꿈을 통해 직접 신탁을 받아 오오모노누시의 자손인 오오타타네코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자 간신히 나라가 평온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제사권과 통치권이 이원화되어 신들의 제사권을 갖고 있던 신녀(황녀)의 신탁을 받아 황자가 통치를 하던 시대에서 황자가 통치권과 제사권을 같이 장악하는 시대로 이행되는 과도기의 전승으로, 신관이 여무(女巫)에서 남무(男巫)로 이행되는 잔영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특기할 만한 것은, 천손 니니기에게 이즈모의 오오쿠니누시가 국토를 양도한 후에도 사제왕으로서 국신을 모시는 제사권을 갖고 있었던 이즈모는 천황가의 타타리가미로서 여전히 야마토 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숭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신이 야마토의 성역인 미와산에 사는 오오모노누시로, 이 신은 이즈모의 수호신인 동시에 야마토의 타타리가미였다.

---

52) 실제로 미와산의 뱀신은 붉은 칠을 한 화살로 변해서 세야타타라히메와 혼인해 진무천황의 왕비가 된 호토타타라 이스케요리히메를 낳는다. 카모의 와케이가즈치노미코토도 붉은 화살로 변한 호노이가즈치노카미(火雷命)와 처녀가 결혼해서 낳은 신의 자식이다.

53) 山上伊豆母, 『日本の母神信仰』, 大和書房, p.74 参考.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신화에 나타난 여음과 관련된 전승을 중심으로 일본의 여신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여신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대일본인의 기본적인 사유는, 자연도 신도 인간도 태어나고 죽을 때는 공히 여음형 공간(화산의 화구, 용광로, 가마의 화로, 동굴, 분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동하면서 순환을 되풀이한다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지모신 이자나미의 죽음이 여음과 관계되고 이자나미의 죽음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자연신과 문화신들이 태어나는 것은, 생과 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한 일본인의 원환적인 사생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신 이자나미의 출산과 죽음에 관한 신화는 화산의 분화구를 통한 대지의 출산행위와 여음에 의한 인간의 출산행위를 하나로 표상화한 것이다. 화산의 화구에서 불, 용암, 돌과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은 대지의 여신이 여음을 드러내고 몸을 틀면서 그 위대한 힘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대지의 출산행위이다. 이와 같이 대지의 화산활동에 의한 국토와 만물의 생성과정을 지모신 이자나미가 불의 신인 카구츠치를 낳는 출산장면으로 표상화인 것이다. 예를 들면 불의 신인 카구츠치를 낳다가 죽어가는 이자나미의 구토에서 금속의 신인 카나야마비코와 카나야마비메가 생기는 것은 용암이 분출해서 여러 가지 광물질이 생기는 것을 표상화한 것이다. 또 다른 불은 용광로 내지 가마에서 발생하는 문명의 불이다. 아내가 죽자 분노한 이자나키가 아내를 죽이며 태어난 불의 신인 가구츠치의 몸을 토막내자 몸에서 흘러내린 피에서 여러 신들이 탄생하는 것은 용광로에 금속을 녹여서 이를 망치질하면서 물과 불로 담금질을 하는 대장간의 불을 표상화한 것이다. 또한 죽어가는 이자나미의 대변에서 점토의 신인 하니야스비코와 하니야스비메가 태어나고 소변에서 물의 신인 미즈하노메가 태어나는 것은 토기를 굽는 불가마, 즉 문명의 불을 표상화한 것이다.

한편 이자나미의 묘소가 야마토의 동남쪽에 있는 키이의 쿠마노(니혼쇼키신화)와 야마토의 정서쪽에 있는 이즈모(코지키신화)에 공히 존재하고 이들 묘소가 여성의 여음을 닮은 해변의 동굴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신체타계로서의 여신의 여음과 자연타계로서의 동굴을 하나로 생각한 고대일본인의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죽음과 재생이 여음의 유사공간인 아메노이와야토라는 바위동굴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여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죽은 여신의 재생의례에도 여음이 관계하는 것은 이러한 고대일본인의 사유를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실례들이다.

실제로 일본의 여신들 중에서 이자나미, 아마테라스, 아메노우즈메 여신은 여음을 둘러싼 죽음과 재생의례와 관련을 맺고 있다. 지모신 이자나미와 천황가의 시조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죽음의 원인이 음부의 손상 때문이라는 것과 아메노우즈메가 여음을 노출시킴으로서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소생하게 하는 신화에는 여음숭배 내지 여음의 주력을 믿는 신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자나미의 제장과 아마테라스의 제장은 모두 동굴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생과 사의 통로로서의 여음과 그 유사 상징물로서의 동굴은 죽음의 공간인 동시에 탄생의 공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음은 단순히 신화 스토리 전개상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의 죽음과 재생의 제장에서 벌어지는 진혼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신화와 의례와의 상관관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여음숭배, 태양숭배 등 고대일본인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일본신화에는 무수히 많은 여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천상계인 타카마노하라 판티온의 여신들은 단성생식에 의해 태어나 단독신이거나 부부로서 태어난 신들로서 그 이름만이 존재하는 관념신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지상계인 이즈모에 출자를 둔 여신들은 조신, 모신, 신처로서 활약하면서 이즈모의 국가창성을 주도하는 남신들을 도와주는 수호신들이다. 이즈모의 조신 카미무스히는 그 딸인 키사카히메를 파견해 오오나무치의 생명을 구하고, 그 아들인 스쿠나비코나를 파견해 오오나무치의 국토조성에 협력하도록 한다. 대지의 지모신 이자나미는 일본의 국토와 만물을 낳는 여신으로 나중에는 죽음의 신이 되어 생과 사를 동시에 관장한다. 스사노오의 아내 쿠시나타히메, 오오나무치의 아내 스세리비메, 태양신 사다노오오카미의 모신 키사카히메는 모두 이즈모의 여신들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남신들을 낳아 기르고 이들을 수호한다. 한편 여신은 아니지만, 오오모노누시는 이즈모의 수호신으로 야마토의 중심지인 미와산에 살면서 천황가로부터 제사를 받는다. 이 신은 만일 천황가가 자신의 제사를 소홀히 하면 재앙을 일으키는 무서운 신이기 때문에, 야마토의 대왕가는 오오모노누시의 자손을 왕비로 맞이하거나 황녀를 오오모노누시의 신처로 받치거나 한다. 그런데 이 신과 관계를 맺는 여성(무녀)들은 붉은 칠을 한 화살에 찔려 이 신의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음부를 찔려 죽거나 한다.

일본의 여신신화에 보이는 이와 같은 여음숭배는 고대일본인들이 여성의 여음

내지 유사 상징물인 여음형 공간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고 생육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음 내지 여음형공간을 통해서 자연도, 신도, 인간도 탄생과 죽음을 반복한다고 하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음 내지 여음형 공간은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통로인 것이다.

参考文獻

倉野憲司・武田祐吉校注,『古事記 祝詞』, 日本古典文学大系 1 (岩波書店, 1958).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校注,『日本書紀』 上, 日本古典文学大系 68 (岩波書店, 1967).
秋本吉郎校注,『風土記』, 日本古典文学大系 2 (岩波書店, 1958).
大和岩雄,『天照大神と前方後円墳』(六興出版社, 1983).
平林章仁,『三輪山の古代史』(白水社, 2000).
吉野裕子,『大嘗祭 天皇即位式の構造』(弘文堂, 1987).
鎌田東二,『神と仏の精神史』(春秋社, 2000).
松前健,『日本神話の謎』(大和書房, 1985).
山上伊豆母,『日本の母神信仰』(大和書房, 1998).
平林章仁,『三輪山の古代史』(白水社, 2000).
鎌田東二,『ウズメとサルタヒコの神話学』(大和書房, 2000).
大和岩雄,「柿本人麻呂と大嘗祭」,『東アジアの古代文化』第60号 (大和書房, 1989・秋).
田村円澄,「「天照大神」と天武天皇」,『東アジアの古代文化』第67号 (大和書房, 1991・春).
松前健,「大嘗・新嘗祭と記紀神話」,『東アジアの古代文化』 第60号 (大和書房, 1989・秋).
三谷栄一,「天武・持統朝の時代」,『東アジアの古代文化』第40号 (大和書房, 1984・夏).
吉野裕子,「日本古代信仰にみる東西軸」,『東アジアの古代文化』 第24号 (大和書房, 1980・夏).
矢代和夫,「アマテラスと伊勢神宮」,『古神道・神道の道』別冊歴史読本 (新人物往来社, 1996年).
江口洌,「伊勢神宮の遷宮と本姿」,『東アジアの古代文化』113号 (大和書房, 2002・秋).
岡田精司,「伊勢神宮の成立と古代王権」,『伊勢信仰 1』, 荻原竜夫編 (雄山閣, 1985).

<Abstract>

Japanese Myth of Goddess and Genital Worship

Kim, Hoo-ryun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in Japanese myth of goddess. First is the correlation to genital worship. Genital worship is in common in myths of Takamanohara and Izumo. Second, Japanese goddesses' characteristics are well embedded in the myth of Izumo. Goddesses in Izumo fully show their characters as a goddess of generation, as a goddess of land, and as a mother of gods.

Genitals are very important clues of development or reversal in mythological events of stories. Also, genitals represent deaths related to caves or graves as a symbol of genitals and requiem masses praying for regeneration. For example, Izanami, who was the goddess of Earth, dies gaving birth to the fire god and since then she rules over the underworld. The sun-goddess Amaterasu was pierced in her genital and retreated to a cave called Amenoiwayato, and then Amenouzume, the medium, brought Amaterasu back with her provoking dances naked. Additionally, another sun-god Sarutahiko gives his divinity to Ninikinomikoto by the medium of Amenouzume's genital.

The trace of Amaterasu, who is promoted from a medium to the sun-goddess, is projected on the medium Amenouzume performing the requiem rite for the sun-goddess. Usually, ancient sun-gods are male like Sarutahiko and Sadanoookami. Izumo's sun-god Sadanoookami was born by Kisakahime, who represents a genital, in a cave through the medium of a gold arrow representing the sun. Genitals and caves are the most crucial path and medium of the life and death. The requiem masses of Izanami and Amaterasu is performed in caves, and also the sun-god Sadanoookami was born in a cave. Besides, Izumo's Oomononushi showed himself by piercing a woman's genital to give birth his baby and killing his female servant through stabbing her

genital.

There are plenty of goddesses in Japanese mythology. The goddesses in the heavenly Takamanohara pantheon exist by monogenesis and were born as a couple, in other words, they exist just as concepts. So the goddesses in Takamanohara pantheon don't have any character as a female. On the contrary, in the earthly Izumo, goddesses fully show their characters as a goddess of generation, as a goddess of land, and as a mother of gods. They are guardian deity helping gods to build Izumo. Kamimusuhi send her daughter Kisakahime to save Oonamuchi's life, and send her son Sukunabikona to help Oonamuchi's to foster Izumo. The land-goddess Izanami who create all things reigns both of the life and death as a goddess of underworld. Susanoo's wife Kusinatahime, Oonamuchi's wife Suseribime, the sun-god Sata's mother Kisakahime they are all Izumo's goddesses bringing up gods and guarding gods as wives and mothers. On the other hand, Izumo's god of the gods Ookuninushi's other self Oomononushi receive religious services from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living in Miwa mountain, he gives rise to a disaster if the service is performed with disregardful. So Yamato's Imperial family has to take a wife from one of the Oomononushi's offspring or offer their daughters to Oomononushi's wives.

Key words: goddess, genital worship, Izanami, Amaterasu, Amenouzume